

사고방식의 차이



김 규 복
(본회 부산지회장)

뭐든지 잘하는 만능인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계속 공부하고 해외 여행 계획까지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일 집구석에 틀어박혀 있으면서도 근교에 바람 쐬러 나갈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 이를 만드는가?

전자는 천성적으로 잘난 인간이고, 후자는 약하고 게으르며 성격이 원만치 않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가장 큰 차이는 생각하는 방법의 차이. 물론 전자는 이것저것 일을 벌이고 바쁘게 뛰어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외형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반면, 후자는 혼자 사색하는 것을 즐기는 내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보이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외에도 이런 극단적인 차이를 벌이는 데 한몫 하는 요인이 있다. 바로 사고방식의 차이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전자는 ‘할 수 있다’ 형이고 후자는 ‘할 수 있을까?’ 형이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이와 ‘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이 사이에는 엄청난 수준 차이가 존재한다. 망설이고 의심하는 시간동안 그는 그만큼의 가능성과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발명의 세계에서는 이 의심의 차이가 불러오는 간격이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처럼 바보스런 일도 없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을까? 창작이란 특별한 사람이 하는 특별한 행위가 아닐까?”

자신을 스스로 무력하게 만들고, 창작의 영역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나 되는 듯이 두려워 하는 이들. 창작정신을 아인슈타인이나 미켈란젤로 같은 천재가 대대로 비밀리에 숨겨가며 전승하는 전유물처럼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창작을 남의 일쯤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발전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자신의 안에 숨어있는 창의적 능력을 평생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무덤에 들어가게 될지도 모를 것이다.

누누히 강조하여 왔지만, 창작은 넘을 수 없는 금단의 땅에 열리는 금사과가 아니다. 오히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같은 존재라고나 할까?

문제가 되는 것은 창의적 능력이 아니라 이를 끄집어내는 훈련과 노력이다. 아무리 흔한 돌멩이라고 해도 관심이 없으면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관심이 없다면 창의적 능력도 무용지 물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사원의 창의력과 성취욕에 관심을 가지는 추세를 보인다. 잡다한 지식을 많이 아는 이보다 창작정신이 투철한 이에게 점수를 더 주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굴지의 한 석유회사에서는 심리학자까-



지 초빙하여 창의적인 직원과 그렇지 못한 직원과의 차이를 밝히고, 그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는 작업까지 실시했다.

그런데 그 조사결과는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독자적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 의식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 것이다. 즉 창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를 창작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 아주 나쁜 점수를 매기고 있었다.

즉 자신에게는 창의적 능력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었다. 앞서 말한 내용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독의적이지 못한 이들의 대부분은 아이디어에 주의를 집중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디어 창출에 줄곧 수동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에 독의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큰 돌파구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고, 누구에게나 창의적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매사에 굶주린 야수마냥 주위를 유심히 관찰

하고 분석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

물론 두 집단 사이에 학력이나 출신, 나이 등 다른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환경 아래에서 근무하는 등 오히려 너무 획일적인 면이 있을 정도였다. 사고방식의 차이가 상반된 결과를 몰고 온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일은 쉽고도 간단한 일이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창의력을 믿고 매사를 주의깊게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면 된다. 이런 훈련 후엔, 법칙에 도전하며 모험을 망설이지 않고 자기의 전문분야가 아닌 곳에 과감하게 끼어드는 등 놀랍도록 변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창의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이다.

현대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는 시대, 없는 능력도 만들어서 발휘해야 할 판국에 타고난 창의적 능력을 썩혀버린다면 말이 되겠는가?

밭을 일구고 창의의 씨를 뿌리자. 분명 그 열매는 달고 클 것이다. **발특9603**